

◆ 연합 한인 형제회 웹사이트 http://www.koreansfo.org ◆



평화의 도구

(제 151 호)

06년 3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870-7650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yw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koreansfo.org

형제회 소식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3월 5(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음식 봉사하였습니다. 오는 5월 7일(일) 한국 음식인 불고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많은 봉사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 형제회 15년 기록 편찬 위원회

오는 2008년 오렌지카운티 형제회 설립 15주년이 됩니다. 형제회 15년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15년사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제회 15년사 편찬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사진, 기록 등..)나 편찬사에 올릴 글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제회 회원 가입 신청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카운티 형제회에서는 새 회원 가입을 신청받습니다. 새 회원은 그동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정식으로 양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주위의 관심있는 분들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2차 다문화 민족 프란치스코 년 모임

제 2차 다문화 민족 프란치스코 년모임(Annual Multi-Cultural Conference) 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일시: 4월 29일(토) 오전 9:00-오후 4:00

-장소: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2040 W. Artesia Blvd, Torrance, CA 90504

-기타: 참가자는 고유 의상을 입고 나오시기를 권장하며 각 나라 옷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음식은 민족의 고유 음식과 음료수 등 각자 약 4-6명 분을 준비하여 오십시오

■ RH 성 클라라 형제회 설립식

로렌하이트 성 클라라 형제회가 지난 1월 정식 형제회로 인가를 받고 오는 6월 4일(일) 성 마리아 한인 성당에서 다음과 같이 설립식을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합니다.

【시】

사랑과 침묵과 기도의 사순절에

주님,
제가 좀더 사랑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새롭히는
사순절이 되면 닦아야 할 유리창이 많은 듯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제 삶의 일과표엔 언제나 당신을 첫자리에 두고
서도 실제로는 당신을 첫자리에 모시지 못했음
을 용서하소서.

"올해에도 우선 작은 일부터 사랑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마음의 수첩에
당신의 승인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찍거나 문을 열고
닫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저의 조그
만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을 끊임없이 찬미 받으
소서.

식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릇을 닦거나 걸레를 빠는 것과 같은
일상의 행위를 통해서도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좀더 침묵하지 못하였기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배우는 사순절이 되면
많은 말로 저지른 저의 잘못이
산처럼 큰 부끄러움으로 앞을 가립니다.

매일 잠깐씩이라도 성체 앞에 꿇어앉아
말이 있기 전의 침묵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가 다는 헤아리지 못하는 당신의 고통과 수
난... 죽음보다 강한 그 극진한 사랑법을 침묵하
는 성체 앞에서 침묵으로 알아듣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익히는 사순절이 되면
잔뜩 숙제가 밀려 있는 어린이처럼
제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성서와 성인전을 머리맡에 두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새롭히는 계절.

제가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가까운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세상 곳곳에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번도 제대로 기도를 못한 것 같은
절망적인 느낌 속에서도 주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주소서.
제 안에 사제로 살아 계신 당신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심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제가 먼 광야로 떠나지 않고서도
매일의 삶 속에 당신과 하나 되는
즐거운 사순절이 되게 하소서.

- 이해인 수녀 -

【목 상】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호 가를로 신부, ofm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거나, 어떤 힘든 일에
성과를 올렸을 때 우리는 대개 이것을 우리 자
신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돌리고 뿌듯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
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진심으로 그분의 도우
심을 청하고 그 상황이나 일에 임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하느
님의 은총에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내 의지나 힘으로 하고
자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랑의 마음과 온전한 신심(헌신)의 정신으로 기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한다면 성령께서 제대로 기도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도조차도 결국은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애매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 자못 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에서조차도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제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잘 해내었을 때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청하고 받아들일 수용의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1221년부터 1223년 사이에 심적인 고통을 특히나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회칙 작성과 형제회 내의 힘든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 성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줄곧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왔지만 이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였고, 그 결과로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순응시키는 법과 모든 것을 그분의 도우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의 오상은총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오상을 받은 후에도 그것으로 사람들이 그를 위대하게 여길까봐 그는 그 오상을 숨겨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것조차도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간 하느님께 절실하게 도움을 청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이고, 겨우 있는 힘조차도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은 이런 삶의 결과이고 표시입니다.

【프란치스코 러시아 선교】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하나는?

T 평화와 선

오늘은 새벽 5시 50분에 울린 전화 소리에 10분정도 더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없는 전화 소리에 일어나서 약간은 허탈했지만, 그래도 그 덕에 조금 일찍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철학자 칸트 처럼 늘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마리오 수사님이 준비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기쁨이다. 잠시 차를 마시면서 전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일과가 이제는 일상화 되었다.

몇달 전부터 시작된 아침 미사가 8시 이기에 미사 전에 많은 시간이 텅으로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성서를 읽는 것이 나의 또 하나의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만나는 즐거움이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맛은 늘 감미롭다. 예전에는 커피 맛을 잘 몰랐다. 그러나 커피도 자주 마시고, 다양한 맛을 즐기니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도 난 아직 커피 맛 보다는 커피를 마시는지 분위기가 더 흥미롭다.

내가 커피 향내를 즐기며 마시는 아름다운 추억 중의 하나는,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가나 산 정상에서 맛보는 그 맛은 나의 아름다운 기억 창고에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손님이다.

흔히들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물으면, 사실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늘 한가지씩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기억에 남는 음식이 많지 않다. 그래도 기억에 나는 것은,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시원한 생맥주나, 앞서 말한 자연 안에서 마시는 커피 향기는 늘 또 한번씩 맛보고 싶은 것들이다.

사람은 참으로 단순하다. 어떤 비싼 음식보다는 한 잔의 커피에도 마음이 온통 편안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저 단순한 것들 안에서 기쁨이 있고, 추억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다른 하나가 생겼다. 난 이 맛을 느끼기 위해 자주 노력하고 맛에 빠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성서를 읽으면서, 단어 하나 하나의 뜻을 살피는 것이다. 특히 복음이 전체 맥락은 늘 아는 것이지만, 전체의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더 깊게 심어주는 한 단어를 만나면 그 단어가 담긴 뜻과 의미를 찾기 위해 영어 성서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한국말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말로 된 성서가 가장 쉽게 의미가 다가오지만, 흔히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노치기 쉽다. 그러나 러시아 말은 모국어가 아니지만 어떨 때는 한국말이나 영어보다 더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단어를 읽고 그 단어의 이면에 숨어있는 맛을 발견하면, 성서에서 말하는 진주는 찾는 어부의 기쁨이랄까?

늘 하루에 한 단어씩만 낚아도 난 아주 굉장한 부자가 될 것 같다. 특히 새벽에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며, 성서 안의 맛을 느끼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는가?

난 내일도 성서에 감추어진 진주를 캐며, 커피를 들고 하루를 시작해보는 기쁨을 맛보고 싶다.

러시아에서 여러분의 아들 도미니코 형제

【좋은 글】

행복을 숨겨 둔 곳

이 세상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인간에게는 행복이 미리 주어져 있었다.

그러니 천사들은 인간들이 얼마나 꿀불견이었겠는가.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 결의하였다.

인간에게서 행복을 회수해 버리기로.

인간들은 마침내 행복을 빼앗겼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감춰두느냐 하는 것이 천사들의 고민이었다. 한 천사가 제안하였다.

"저기 저 바다 속 깊은 곳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머리는 비상하오.

바다 속쯤이야 머지않아 뒤져서 찾을 거요."

한 천사가 제안하였다.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숨겨두면 어떨까요?" 이번 역시도 천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인간들의 탐험정신은 따를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 제아무리 높은 산 위에 숨겨두어도 찾을 거요." 궁리하고 궁리한 끝에 천사장은 마침내 결론을 내었다.

"인간들의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기로 합시다. 인간들의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정신이 강해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닫기는 좀체 어려울 것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매사에 생기를 잃고 축 처지기 마련입니다.

더 큰 행복을 바라는 욕심 때문에 불행이 생기고 맙니다. 행복의 키를 낮춰보세

요. 마음속에 있는 행복이 보일 것입니다. 행복, 멀리서 찾지 마세요. -